

## 기독교의 전인치유사역

황 옥 남\*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양의학은 의료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첨단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의료기술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였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초월적인 희망을 안겨주지는 못하였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병원은 교육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변했고, 인간에 대한 동정어린 관심은 임상적인 우수성으로 대체되었으며, 인격적인 치료가 생명과학적 비인격주의로 변색되어가고 있으며,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정적인 마음이 학문적 우월성과 전문적인 우수성으로 대체하는 교만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기독교정신은 이러한 전문성의 그늘에 가리워(설대위, 1997) 하나님으로 인한 치유사역을 마치 미개인들이나 사머니즘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냉소적인 반응을 팽배시켰다. Koe-stler는 이 세대를 ‘영적 빙하기’라고 불렀는데 이는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이원적으로 본 이원설로 인해 비물실적 혹은 영적인 인간의 부문을 교회에 할당시키고 남은 과학과 의학에 맡겨져 질환과 최후의 죽음까지 비인격화 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Amenta, 1986). 우월한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산업 및 교통사

고와 공해로 인한 질병과 장애, 각종 만성질환과 암이나 에이즈 같은 불치병들의 증가는 인간에게 또다른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지금껏 널리 합의 되어온 간호학적 인간관은 인간을 부분으로 환원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적 신체(최남희, 1991) 즉 몸, 마음, 영혼이 서로 통합된 실체임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간호이론이나 실무의 대부분은 인간의 생리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수지, 1980 : Taylor, 1993 : Simsen, 1988).

인간을 통합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인치유’로서 이는 원래 성서적 인간개념을 기본으로 하며 ‘신성하고 온전한 치유’라는 의미를 지닌다. ‘신성한(holistic)’이란 말은 광범위한 어의를 갖고있지만 ‘Holy’ 즉 ‘신에게 바쳐진’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어 기독교적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져야함을 나타내고, ‘온전한(wholistic)’이란 용어는 ‘온전한 사람’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손상없이 건강한 상태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whole’의 의미를 담고 있다(Folta, 1995). 그러므로 종교나 간호 및 의술 모두 삶의 완전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Hungelmann 등(1985)은 인간은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 자연과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영적

\* 영동전문대학 간호학과

존재라고 하였다. 간호진단에서도 ‘영적문제, 영적관심, 영적좌절, 영적 고통’을 영적인 간호문제로 인식하여 (Ruth, 1979, Yura & Walsh, 1983) 영적간호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영성에 대한 무시는 신체적, 정서적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영성의 양육은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적 차원은 개인을 초월하고 인간존재를 서로 연결하는 능력을 지니며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Bank, 1980. in Bank et, 1984).

Fish & Shelly는 영적요구를 하나님과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결핍된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치료적 사용과 기도 및 성경말씀의 이용, 성지자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수지, 1980). Aaronson 등(1987)은 인간의 영적인 면은 개인생활, 정신적 지지의 유지 및 굳은 신념 체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김효빈(1989)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치료적 사용, 성경 사용, 기도사용 등의 영적 중재가 암 환자의 통증감소에 효과적임을 드러냈다(민소영, 1995).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그리스도에 기원을 둔 종교로서 예수그리스도의 삶, 인격, 교훈등을 근본으로 하며(주재강, 1983), 그리스도의 의의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며 이말은 그리스도가 생의 규정적인 태도의 동력이 되며 기분이나 기질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영원한 자력이 되는 것이다. 즉, 기독교의 현대적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불안에서 안정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예배에서 확신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는 대전환을 가져오는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임을 말하며(김태하, 1980)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안에서 소망과 영원한 희망을 갖게된다(김수지역, 1980), 그러므로 기독교적 영적 전인간호 수행은 대상자에게 치유적 힘이됨을 확신할 수 있다.

간호사의 역할은 임상전문가,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치료자의 역할 수행(이지희, 지성애, 1993)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치유자로서의 본보기가 성서에서 잘 나타나 있으므로 성서의 치유적 입장이 영적치유를 통해 영적 간호 영역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러개의 종교중 특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전인치유의 방법을 알아보기위해 먼저 성서에서 하나님의 치유방법을 분석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하고, 간호의 본질과 비교하여 그 동질성과

차이성을 분석하므로서 기독교간호사들이 전인적 치유를 돕기 위해 어떻게 영적치유를 지향해나가야할지를 연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주 text는 성경이고, 논문의 진행과정은 먼저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서술하고, 둘째 단락에서는 성서에서 치유에 대한 어원과 의미, 질병의 일반적 개념과 원인을 밝히고, 셋째 단락에서는 구약성서 속의 치유사역과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치유사역을 분석하고, 넷째 단락에서는 기독교 전인치유시 간호사의 역할과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질병과 치유

### 1. 치유의 어의와 의미

구약성서의 치유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라파(**רפא**)인데, 이것은 ‘상처를 고치다’, ‘치료하다’(창 22 : 17), (하나님이) ‘치료하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대하 7 : 15, 시 30 : 3), ‘수선되다’(렘 19 : 1), ‘위로하다’(렘 8 : 11, 겔 34 : 4), ‘치료받다’(레 13 : 37, 사 53 : 5), ‘자신이 고침 받게 하다’(왕하 8 : 29)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영민, 1984).

신약성서에서는 세라퓨에인(**θεραπεύειν**)이 ‘치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헬라 세계 속에서 비종교적인 의미로 ‘섭기다’, ‘봉사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이며, 친밀한 방식으로 주의 깊게 보살펴주는 봉사요, 사려 깊고 꼼꼼하며, 양심적인 보살핌을 의미한다(Oden, 1983). 이러한 봉사는 의사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세라퓨에인(**θεραπεύειν**)은 병든 자를 염려하여 돌보는 의학적 치료를 묘사하는데 쓰여져서 간호일반에서 쓰여지는 간호역할이 치유적 방법임을 제시해 줄을 알 수 있다.

소조(**σωζω**)는 ‘보존하다’, ‘상하지 않게 지키다’, ‘구제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를 뜻하며, 치료의 의미는 ‘한 사람을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로 해석된다. 이 단어로부터 신학적인 용어인 구원(soteriology)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Kelsey, 1986).

인간의 질병은 창조된 원형으로서의 인간 본래성이 상실된 모습이다. 즉 죽음과 부패와 허무에 노출된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창 1 : 26)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래적 인간의 온전한 건강과 조화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조화의 관계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이었다. 이것이 파괴되고, 왜곡되어진 것이 곧 질병이라고 본다면, 치유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적인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질병의 일반적 개념

질병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두절서한 상태이나, 일반적으로 질병은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상태로의 타락임과 동시에 특수한 증상을 수반하는 비정상적인 생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신약에서의 질병의 뜻으로 주로 사용된 단어는 아스페네오(*ἀσθενέω*)로서 ‘약하다’, ‘무능하다’, ‘병들다’(마 25 : 39, 눅 7 : 10), ‘가난하다’(행 20 : 35)의 뜻으로 쓰였다.

질병은 육체의 건강이 상실된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질병은 정서적, 사상적인 사건이기도 하며 동시에 삶 전체를 파괴하는 사건이다. 성경은 정신적, 심리적인 원인과 육체적인 원인 외에도 질병을 죄와 사탄과의 관련성 및 하나님의 섭리 등 넓은 의미로 보고 있다(오성춘, 1985).

## 3. 질병의 원인

### 1)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히브리 사람들은 질병은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였다.

구약성서에는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온다. 신명기 28 : 20-22에 보면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께서 열병과 폐병과 열병과 같은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고 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시 107 : 7)”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시 38 : 5)”라는 시편의 말씀들은 모두 질병이 죄악으로 인함을 나타내 준다.

신약성서에서도 범죄와 질병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 5 : 14에서 38년된 병자에게 예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하셨고, 막 2 : 1~12에서도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볼 때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질병, 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하나님의 섭리(김용식, 1984)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 있다. 출 4 : 11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라고 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낄 때부터 소경된 자의 소경된 이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질병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 3) 사탄의 작용

어떤 질병은 그 근원이 사탄인 것도 있다. 누가복음 13 : 11~13에는 십팔년동안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어떤 여인의 치유사건이 나온다. 이 여인의 치유는 사탄의 메인바되었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났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마 17 : 14~18에도 귀신들려서 간질을 앓는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 이때에도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어쫓으시니 아이가 나았다고 기록되어있다.

### 4) 의인을 연단

하나님께서 의인을 연단하기위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질병을 가져오게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의 경우에서 발견된다. 욥은 의인이요, 번져하지 않았지만, 반비다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는 괴로움을 당하였다(욥 2 : 7).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교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사자, 곧 질병을 얻게된 경우이다(고후 12 : 7).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에서와 같이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5) 스트레스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양한 위협과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하는 부담을 갖고 살아간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Grey & Hayman, 1987). 현대인의 다양한 질병들은 무절제한 식습관, 오염,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의 증가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다(Mayhue, R., 1986).

특히 질병을 발생시키는 스트레스 주요인자는 잘못된 시간관리, 부족한 인내심, 부족한 적응력, 일관성 없는 행위, 현대생활의 급속한 생활패턴 변화, 미움, 노화,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으로 주로 무절제와 부조화로 인해 발생된다(김명자, 1990).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기인된 질병들은 흔히 스트레스를 제거함으로써 치유의 도움을 받는다. 시편 32 편은 다윗의 신체의 고통 원인이 맞세바와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아울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시 32 : 3~5).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을 때 그는 신체적 질병도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장임철, 1990).

#### 6) 불건전한 환경

사람이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주위의 환경 공동체가 건강해야만 한다. 주위의 환경이 너무 편리하고 안락해도 육체적, 정신적 약화가 일어나며, 너무 신경을 자극해도 공포, 반항, 후회, 좌절 등이 올 수 있다. 무력과 분노와 정서적인 억압과 모든 종류의 해로운 감정으로 가득찬 고통스러운 가족 생활 속에서 정신과 몸은 만성적으로 병들게 되며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Macnutt, F., 1979).

### Ⅲ. 심서에 나타난 치유

#### 1. 구약에서의 치유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표 1〉 구약성서 속의 하나님의 치유사역

치유내용	치유동기	치유방법	치유목적	치유대상	치유조건	치유기간
아비멜렉불임치유 (창20 : 17)	아브라함기도	생산케함		불임자	기도	즉각
적진 미리암의 문둥병치유 (민12 : 9-16)	모세의간구	진밖에7일을 가두고들어오게함	징계 용서	문둥병	기도	7일 후
히스기야병치유 (사38 : 1-6)	이사야의간구무화가 반죽	15년더수명연장	응답	죽을병	기도	즉각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 (왕하5 : 8-14)	엘리아의간구	요단강물에일곱번 씻으라말함	-	문둥병	순종	즉각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숨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며 가족을 지어 입혀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은 영적인 죽음과 질병에서 인간을 치유해 내시는 최초의 치유자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면 치유의 복을 허락하셨다(출15 : 26). 구약의 히브리 민족은 질병에 걸렸을 때 의학적 도움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를 통해 기도함으로 치유를 경험하였고 특히 포로시대 이후에는 인간의 힘으로 고치려는 자세를 하나님의 대권에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박형렬, 1994). 구약성서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형벌, 저주, 채찍, 혹은 은총을 위한 시련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질병에서의 치유는 반드시 속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치유는 사실상 구원과 그 의미가 같으며 인간과 하나님사이의 관계를 소생시킨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로 인한 질병이나 그들의 심중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시어 선지자들과 개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백성을 치유하여 주심을 볼 수 있다. 치유한 질병도 불임과 같은 부인과적문제와 급성(교상 등), 만성질환(문둥병, 정신병 등)에서부터 불치병과 죽은 자를 살리는 등 기적적인 치유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즉각적으로 치료되기도 하지만 단계적으로 일정 시간 뒤에 치유하기도 하므로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 철저한 회개, 죄된 삶의 양식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해야한다(Wimber, J. & Springer, K., 1992). 치유방법도 안수, 찬양, 물에 세척, 기도, 하나님이 특정하게 지시한 방법에 순종하게하므로 치유하셨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질병은 물론 속죄를 통해 완전한 치유를 해나갔다.

〈표 1〉 (계속)

치유 내용	치유 동기	치유 방법	치유 목적	치유 대상	치유 조건	치유 기간
느브갓네살왕의 병치유 (다4:28-37)	다니엘의 간구	7곱때에 회복시킴	검손케함	정신병	-	일곱때후
이스라엘백성 염병치유 (민16:41-50)	속죄함	단의불을담은향로에 향으로속죄	정계용서	염병	속죄	즉각
이스라엘백성의 뱀에 물림치유(민21:4-9)	모세의 기도	뱀을쳐다보면 낮게함	정계용서	뱀에물림	순종	즉각
악신이든 사울치유 (삼상16:14-23)	사울신하들의 처방에 순종	다윗의수금을 탈때치유		악신이들림	순종	즉각
사르밧 과부의 아들 소생(왕상17:17-24)	엘리아의 기도	아이들안고 (안수)기도	여호와능력	죽을병들	기도	즉각
시체가 회생 (왕하13:20-21)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회생		시체		즉각
죽은 수렘여인의 아들 소생(왕하4:32-37)	엘리사가수렘 여인익신증의 과로울을간파	아이얼굴에 지팡이를 놓고, 아이몸에 반복 하여 얹드림(안수)		죽은아이		점진치유
욥의 악창치유 (욥42:10)	욥의 회개		여호와주권	악창	회개	즉각

## 2. 신약에서의 치유

### 1) 예수님의 치유

신약의 4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나타내는 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역이 치유사역이어서 구약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신약의 예수님도 치유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은 “선교, 가르치심, 치유”의 3대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마태복음 25건, 마가복음 18건, 누가복음 24건, 요한복음 5건 등 총 72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1/3과 복음서의 1/5에 해당되는 숫자이다(박행렬, 1994).

〈표 2〉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목적은 단지 사람들의 육체적 유익만을 위해 시행된 것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의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즉 참된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정

체성을 확인해 주셨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치유목적은 질병 자체의 치유뿐 아니라 구약에서와 같이 죄사하는 권세(마9:6)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요11:4). 또한 단순한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기적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현존하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으로서 치유는 바로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 구원인 것이다(김유진, 1995).

예수님의 치유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즉 안수와 말씀 능력을 각각 혹은 함께 사용하였고, 병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 또한 침과 흙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치유의 수단으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한 민간요법이다. 오늘날의 의학기술이나 전통요법도 치유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할 것은 수단 자체가 갖는 치유의 능력보다는 “치유의 핵심은 예수그리스도”(이성훈, 1989)이므로 예수님의 자체가 치유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현장에서 기도의료인들은 주님이 인류에게 허용하신 의의료기술에 감사하며 궁극적이고 온전한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사용하시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히 의지하여야 한다.

〈표 2〉 신약성서 속의 예수님의 치유사역

치유 내용	치유 동기	치유 방법	치유 목적	치유 대상	치유 조건	치유 기간
나면시소경된자치유 (요9:1-7)	길가시디보심	침과 진흙이거늘 에바르고 씻음	하나님 깨영광	소경	—	점진
벧새다의 소경치유 (마8:22-26)	타인이 데려옴	침을 뱉고 안수	구원	"	믿음	치유
두 소경치유 (마9:27-31)	직접 간청함	말씀	구원	"	믿음	즉각
소경 바디매오치유 (마20:29-34, 막10:46-52, 눅18:35-43)	간절히 간청함	말씀	구원	"	믿음	" "
나면시 문둥병자 (마8:2-4, 1:40-45, 눅5:12-16)	간청함	안수와 말씀	—	문둥병	믿음	즉각
열 문둥병자 (눅17:11-19)	간청함	말씀	—	"	"	"
나인성과 부아들소생 (눅7:11-15)	불쌍히 여김	안수와 말씀	하나님	죽은자	—	즉각
나사로소생 (요11:17-44)	민망히 여김	말씀	깨영광	소생	—	"
야이로의 딸소생 (마9:18-26, 막5:2 2-24, 35-43, 눅8: 41-42, 49-56)	아버지 간청	말씀	구원	"	믿음	"
회당에서 귀신 추방 (막1:23-28, 눅4:31-36)	길가다 만남	꾸짖음(말씀)	권세와 능력	귀신 들림	—	즉각
거라사 귀신 들린 자치유 (마8:28-34, 막5:1-20, 눅4:31-36)	"	말씀	구원	"	—	"
병어리 귀신치유 (마9:32-33)	타인이 데려옴	만남	"	"	믿음	"
귀신 들린 아이치유 (마17:14-18, 막9:14-29, 눅9:37-42)	엄마의 간청	꾸짖음(말씀)과 만남	— —	"	믿음	" "
귀신 들린 여인치유 (눅13:10-17)	주님이 보심	안수와 말씀	영광	"	믿음	"
눈먼 병어리 귀신 들린 자치유 (마12:22)	타인이 데려옴	—	—	"	—	"
수로보니게 여인 딸치유 (마15:21-28, 막7:24-30)	여인의 간청	말씀	—	"	믿음	"
가나에서 왕의 신하치유 요4:46-54)	신하의 간청	말씀	가족 구원	열병(급성)	믿음	즉각
베데사다 병자치유 (요5:1-9)	주님이 찾아감	말씀	—	38년 앓은 병이	—	즉각
베드로 장모 열병치유 (마8:14-15, 막1:29-31, 눅4:38-39)	타인이 청함	병을 꾸짖고(말씀) 안수	—	열병(급성)	믿음	즉각

〈표 2〉 (계속)

치유 내용	치유 동기	치유 방법	치유 목적	치유 대상	치유 조건	치유 기간
중풍병자치유(마9:2-8, 막2:1-12, 눅5:18-26)	4친구들간청	말씀	하나님께영광	중풍병	믿음	즉각
손마른자치유(마12:9-13, 막3:1-5, 눅6:6-10)	주를송사하려함	말씀	안식일	선행	손마름	즉각
백부장의종치유(마8:5-13, 눅7:1-10)	백부장이간청	말씀	구원	중풍병	믿음	즉각
혈루증여인치유(마9:20-22, 막5:25-34, 눅8:43-48)	주님옷을만짐	능력이 나감	구원	12년혈루병	믿음	즉각
귀먹고어눌한자치유(막7:31-37)	타인의간청	말씀, 양귀에손가락넣고침뱀아 혀에손을댄(안수)	-	귀먹고 어눌한 자	믿음	즉각
고창병(수종병)자치유(눅14:1-6)	하나님의영광위해	-	-	안식일참의미	고창병	즉각
대제사장의종 말고의 귀치유(눅22:49-51, 요18:10)	-	안수	-	-	귀가잘림	즉각

예수님도 구약에서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 질환들, 급만성 질환과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죽은자를 살리시는 등 온갖 질병을 치유하셔서 “……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니라(마 4:35)”하신 예수님의 전능한 치유능력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치유방법의 본질은 성례전적이며 종교적인 것이다. 예수는 그의 말과 행위와 태도로서 인간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고 그것들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은 권능을 예수님 통하여 사람들의 삶속에 파고 들어왔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이 온전케 회복되었다(장임철, 1990).

예수님의 치유에는 무조건이라기 보다는 ‘믿음’과 매개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 병자 자신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치유를 믿는지를 확인하여 치유해주셨다. 예수님의 치유에 또 중요한 요인은 ‘기도’이다. 환자본인이던지 제삼자이던지 간에 간곡히 간청하고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며 부르짖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볼 때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예수님의 치유의 동기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동기를 갖고 계신다(정병운, 1992). 이는 상처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선행되어짐을 알 수 있다. 치유사역을 통해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증명해 준다.

## 2) 초대교회에서의 치유

초대교회에서의 치유능력은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었다. 그것은 치유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는 표시로 치유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은 구원의 작은 표시인 치유를 통해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그 표적들은 진리의 증거자인 사도들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행2:42-43). 그러므로 치유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도의 수단이 되었다. 또한 사도들의 치유는 그리스도 자신의 살아계심과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는 치유사역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였으며, 이는 “예수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에서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신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됨을 증명해 준다.

사도들의 치유의 방법은 예수님과 거의 유사하며 의학적인 치유에 대해서도 의술을 인정하였다. 바울은 의술을 인정하고 권면하였는데, 디모데의 위장병을 회복하기 위해 딤후 5:23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였다.

〈표 3〉 신약성서의 초대교회에서의 치유사역

치유 내용	치유 동기	치유 방법	치유 목적	치유 대상	치유 조건	치유 기간
성전미문에 앉은 앓은뱅이를 베드로가 치유 (행 3:4-10)	순종 (쳐다보니)	주의 집중, 그리 스도이름으로 걸 으라 명령 (말씀), 손을 잡음 (안수)	하나님을 찬미	앓은뱅이	순종	즉각
베드로가 많은 병든 무리들 치유 (행 5:15-16)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지나갈 때 그림자	—	각종 병자	믿음	즉각
롯다에 사는 애니아가 중풍병 을 베드로가 치유 (행 9:32-35)	만남	말씀	주변사 람 전도	중풍병	—	즉각
요바에 다비다 여사제를 베드 로가 소생 (행 9:36-41)	이웃과 부들의 간청	기도, 말씀, 안수	전도	죽은 자 소생	믿음	즉각
루스드라의 앓은뱅이를 바울 이 치유 (행 14:8-11)	구원만을 위한 믿음을 확인	말씀	하나님 영광	앓은뱅이	믿음	즉각
점하는 귀신들린 여종을 바울 이 치유 (행 16:16-18)	바울을 괴롭힘	말씀	—	귀신들림	—	즉각
각종 병든 자를 바울이 치유 (행 19:11-12)	치유를 기대	바울의 손수건이 나았치마를 병자 에게 얹힘	—	병과 악귀	믿음	즉각
삼총사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바울이 치유 (행 20:9-1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수	위로 받음	낙상	—	즉각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바울이 치유 (행 28:7-8)	주의 일꾼들을 친숙히 영접	기도와 안수	—	열병과 이질	—	즉각

#### IV. 영적 치유사역

장임철(1990)은 그의 논문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치유의 방법, 즉 기쁨바름(성령 임재와 상림), 믿음, 기도, 의료기술, 말씀, 안수, 죄의 고백, 예배, 사랑, 찬양, 성례전 등 열한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및 사도들의 치유활동을 기독교 전인치유시 필요한 역할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1. 기독교적 전인치유시 간호사의 역할

오늘날 의료현장에서는 기독교의 신유은사를 모두 광신적이고 미개한 종교활동이라고 치부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과학화된 의학기술만이 전지전능한 치료방법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부재영역과 한편 광적인 종교활동(점성술, 샤머니즘, 모든 의학적 기술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신유은사를 고집하는 모든 활동) 간의 극단적 대립이 기독교인의 역할 갈등을 초래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대립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이 무관심 내지 무반응으로 일관하여 기독교 간호사의 역할을 유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방법을 살펴본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다. 인류문명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지혜의 산물로 인한 문화, 기술적 변화는 하나님의 특별한총과 일반은총을 통한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두 가지 방법을 대립적인 위치에 두신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병합하여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적 치유영역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때 기술 자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시공을 초월하여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사용해 나아가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성서에서는 강조되고 있다.

기독교인란 기독교적 신앙에 기초하여 모든 대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갖도록 돕는 일

련의 의료행위로서 이는 대상자의 안녕과 온전함을 유지시키는 데 목적을 갖고 기독교간호와 대상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격적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한 기독교 전인치유시 간호사의 주요 사역과 임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동안 하신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백성중에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마 4:23) 그 사역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약한자들을 도울 때는 주께 하듯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직 사랑으로 담당해야 한다(Folta, R. H., 1995).

## 2. 기독교 전인치유시 요구되는 간호사의 태도

### 1) 연민과 사랑

예수님께서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눅 7:11-15)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11:17-44)에 그들을 구휼하여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누움까지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환자들에게 처한 고통을 환자의 입장으로 마음 깊숙이 통감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연민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은 사랑이며 이로 인해 대상자와 치료자간에 깊은 내적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심전심 상태인 감정이입(empathy) 단계가 이루어진다. 감정이입이란 타인의 내적 참조체계를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정서적 요소와 의미를 마치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Patterson, C. H., 1982)로서 이것은 대상자를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치유가 시작할 수 있게 하며,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고 치유자의 치유방법(말씀, 기도, 성령의 임재, 의술 등)이 개입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환자와 간호사간의 치료적 관계는 환자에게 적절한 희망을 갖도록하고 환자의 행동을 해석하고 이해해주며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지지해 준다(Benner, 1984).

### 2) 겸손

기독교간호사는 자신이 치료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성서에서는 강조한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치유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이름으로 걸으라(행 3:4-10)”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매 치료절차 때마다 성령님이 개입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함을 뜻한다.

### 3) 강하고 담대함

예수님은 자신감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어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명령하셨지 한번 일어나 걸어보라’든지 ‘일어났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소극적인 치유를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귀신들린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들을 괴롭히는 사단을 추방하기 위해 단호히 꾸짖으시며 강하게 물리치셨다(막 1:23-28, 마 17:14-18). 이와 같이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막 9:29)”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단에 대항하는 추호의 용납함도 없이 강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 4) 믿음으로 인내

성서 속의 치유의 사역의 대부분이 병자 본인이나 이웃의 믿음으로 치유됨을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롬 10:17)”, “의심하지 않는 것(약 1:5-8)”이라 하였으니 보이지 않고 불가능한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로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 5) 말씀으로 치유

예수님께서서는 치유사역을 행하실 때 말씀만으로도 능력을 나타내셨는데(마 9:6-7, 요 5:8-9, 막 10:52),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창조하고 치유하는 권능이 있음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며(요 6:63),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히 4:12), 믿는 자속에서 역사(살전 2:13)하신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온전한 치유와 영적 성장을 위해 적절한 말씀을 공급해야 하며 의료인 자신들도 계속적인 성서연구를 하여 치료팀이 공동의 영적 처방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준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이고 이러한 언어가 학문적 배경속에서 치료적 형태로 잉태한 것이 상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상담의 접근은 이미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하는데 유익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 6) 영적 통찰력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여인(요 4:1-26)에게 예수

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죄를 통회하지 않은 여인이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열망이 생길 수 없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의 대화 방법은 갑자기 역전된다. '네 남편을 데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녀의 마음 깊숙이 김추이진 죄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통찰해 내므로써 여인의 죄된 삶을 고백하게하고 죄된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전환시키시는 치유를 하심을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일어나 걸려라'라는 등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마라'고 당부하신다. 이는 그 질병의 근원이 죄로부터 왔음을 통찰해 내는 예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치유방법도 말씀, 안수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그 환자과 질병에 따라 예수님은 통찰력을 사용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치유하심을 볼 수 있다. 간호사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교통하므로써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마 28:20)"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다.

#### 7) 항상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

예수님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무리를 떠나 혼자 계시거나 수면을 취하시거나 기도를 하시며 스스로 재충전해 나가셨다(막 4:33-41). 기독교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아픈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휴식은 물론 기도를 통해 영적 재충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성서 속의 많은 치유자들은 간절한 간청과 기도로 치유되었음을 볼 때 기도는 치유사역에 절대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된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가 올라가며 하나님의 충만한 치유의 권능을 받게 된다. 기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되는 걸림돌을 철저히 제거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한다.

장임철(1990)은 그의 논문에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야보고서 4장 2-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므로 항상 합당한 이유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둘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벧전 3:7) 가족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기도해야하고, 셋째, 오직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기도하며(약 1:6-8), 구한 것을 얻은 줄 알고 기도해야하며(요일 5:14-15), 넷째, 계명들을 올바르게 지키며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기도해

야 한다(요일 3:22)고 강조하였다.

#### 8) 의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술이나 약은 기도와 믿음과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 의학적 지혜나 의술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어 병자를 고치신다.

기독교 간호사는 기독교인 이기도 하지만 한편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치유에 사용한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사용해야하고, 현재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자질과 기술을 연마해 나가야 한다.

#### 9) 지속적인 영성훈련

지속적인 영성훈련을 하는 것은 기독교적 전인치유를 하는데 간호사에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영적 치유는 어느날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묵상생활, 말씀을 순종과 실천, 치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이 삶속에 녹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양식이 터잡아 가도록 해야한다.

#### 10) 안수

성서 속에서 안수는 축복(창 48:14, 마 19:15)시, 사명을 위임할 때(민 27:23, 민 8:10, 행 6:6, 딤후 1:14, 5:22), 안수하는 자와 받는 자의 동일시할 때(레 1:4), 치유할 때(막 1:41, 행 9:12,17, 행 28:8), 성령의 은총을 받기 위하는(행 8:17)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간호현장에서도 치료적 접촉이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이 됨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다. Morales(1994)은 입원한 8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만짐(touch)의 의미를 질적연구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만짐은 간호에 있어서 신뢰를 진하는 중요한 전달수단으로서 환자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환자를 한 인간으로 수용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장성옥(1995)은 건강을 유지하기위해 사용되는 신체적 접촉의 의미를 몇가지로 세분화하였는데 막힌 에너지의 흐름을 터주는 접촉, 신체장부 상응점을 자극하여 기관의 에너지의 흐름을 터주는 접촉, 물리적인 교정을 통하여 압박부위를 해소시켜 신경전달 및 에너지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접촉 및 혈류와 림프액의 순환을 돕고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인간이 갖는 자가치료 능력을 극대화 시키도록 항상성을 회복시켜 주는 접

축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접촉으로 특성은 긍정적인 중재요인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선한 의도를 전달하며 이탈 상태를 교정하려는 신체적 치료의 의미와 용기를 주고 신뢰감을 조성하여 불안을 가라 앉히고 쾌유를 기원하는 정서적 평형을 도모하려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안수에는 생명력을 전달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잠재력은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려는 간호사들이 병자들에게 안수할 때 치유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력의 전달을 위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안수의 능력을 사용하고 향상시켜야 한다(장임철, 1990).

### 11) 회 개

죄는 전인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파괴한다. 대부분의 성서 속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므로 주어지기도 한다. 죄의 파괴력은 하나님 앞에 고백과 회개를 통한 용서를 얻을 때 제거되어 지고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그에 따른 질병의 짐을 대신 저 주셨기 때문에 사죄의 고백은 용서와 해방감, 자유와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짴어 주셨도다”함을 이루어 내신 것이다. 또한 많은 질병이 용서하지 못한 절서, 즉 미움, 원망, 질투, 분노 등의 감정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자신과 이웃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치료의 에너지가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적시고 흘러서 건강한 공동체와 개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죄로 고통받는 대상자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 회개를 통해 완전한 심리적 자유함과 건강을 누리도록 인도해주어야 한다.

신학적 건강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창조에 대한 올바른 관계 덕분에 갖게되는 전체성, 통합, 절서, 조화, 평화, 안녕 등의 상태라고 정의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정의된 건강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상태이다(Kim, Se-Yoon, 1980)

### 3. 논 의

위에서 기독교 전인치유시 시너야할 간호사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조명해 보았다. 영적간호시 제시한 여러 가

지 태도 즉, 연민, 사랑, 겸손, 전문기술 사용, 안수 등은 이미 간호 전반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요구되어 지는 것이 성서적 말씀, 기도, 회개, 영적 훈련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심리학 등 일반 학문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된 부분도있지만 영적 간호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볼 때 여전히 일반 학문과 차별성이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간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독교적 전인간호를 보편화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담과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 영적 간호 영역에서 연구가 활성화 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에서 이미 여러 가지 기도, 찬송 및 성경말씀 봉독 등의 방법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으므로 전인적 차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성화 시켜 나가야될 과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방법을 분석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확인하여, 현대의료체제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전인적 치유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영적치유를 지향해나가야할지 그 소명과 역할 및 태도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본 논문의 주 text는 성경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성서속의 치유의 어의는 구약성서에서 라파( $\lambda\alpha\phi\alpha$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상처를 고치다’, ‘치료하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 ‘수선하다’, ‘위로하다’, ‘치료받다’, ‘자신이 고침 받게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약성서에서는 세라퓨에인( $\theta\epsilon\rho\alpha\pi\epsilon\upsilon\epsilon\iota\nu$ )이 ‘치유하다’라는 의미로 중요하게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또한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도 있어 개인적이며, 친밀한 방식으로 사려 깊고 양심적인 보살핌의 의미도 있어서 병든 자를 염려하여 돌보는 의학적 치료를 묘사하는데 쓰여졌다.

‘보존하다’, ‘상하지 않게 지키다’, ‘구제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를 의미하는 소조( $\sigma\omega\zeta\omega$ )는 치유의 의미를 한 사람을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 단어로부터 신학적인 용어인 구원(soteriology)이라는 말이 유래됐다.

성서에서 치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 즉 본래적인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며 무질서한 상태이다. 일

반적으로 질병은 정상상태에서 비정상상태로의 타락임과 동시에 특수한 증상을 수반하는 비정상적인 생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신약에서의 질병의 뜻으로 사용된 단어로서 아스페네오(ἀσθενέω)는 약하다, 무능하다, 병들다, 가난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치유방법과 신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치유방법을 분석한 기독교인의 소명과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먼저 자각하고 매시간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영적치유와 의학적 기술을 병합하여 사용하여 모든 대상자와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갖도록 돕고 대상자의 안녕과 온전한 치유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교인이 영적 치유시 지녀야 할 태도는 연민과 사랑, 겸손, 강하고 담대함, 믿음으로 인내, 말씀으로 치유, 영적 통찰력 사용, 항상 기도로써 무장하고 준비, 의학적 지식과 기술, 지속적인 영적 훈련, 안수 및 회개로 나타났다.

## 참 고 문 헌

- 고영민(1984), 성구원어대사전, 서울: 교문사.
- 김명자(1990), 건강증진과 간호학, 신광출판사.
- 김유진(1995), 신앙성경을 위한 비격 치유,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식(1984), 오순절 신학에서 본 신유의 복음, 현대목회 제 31호.
- 김태하(1980), 현대인과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
- 민소영(1995), 암환자의 영적건강 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간호과학: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7, P. 127 ~ 142.
- 박행렬(1994), 전인치유사역, 서울: 도서출판 나임.
- 박행렬(1994), 통전적 치유목회학, 서울: 치유.
- 설대위(1997), 상처받은 세상 상처받은 치유자들-의료선교의 도전과 위기, 김민철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김수지역(1980), 영적간호: 간호원의 역할, 서울: 대한간호협회출판부.
- 오성춘(1985), 질병, 신앙, 하나님의 치유, 기도, 4월호.
- 이성운(1989),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이지희, 지성애(1993), 입원환자의 간호사에 대한 치유적 관계 형성 경험에 관한연구, 간호학 회지, 23(3), P356 ~ 368.
- 장성옥(1995), 돌봄에서의 신체적 접촉의 의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임철(1990), 성서를 통해서 본 질병과 치유,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운(1992), 치유목회에 있어서 목회자의 인간이해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 주재강(1983), 기독교 본질과 역사, 전망사.
- 최남희(1991), 간호학의 방법론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Aaronson, N. K., and Beckmann, J.(1987), The quality of life cancer patients, New York: Raven Press.
- Amenta, M. O. and Bohnet, N. L.(1986), Nursing care of the terminally ill, Bac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Bank, S. R., Poehler, D., and Russell, R.(1984), Spiritual and Human-spiritual interaction as a factor in health and in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15, P.16 ~ 19.
- Benner, Patricia(1984), From novice to expert,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Nursing Division, Menlo Park, California, P. 49 ~ 55.
- Folta, R. H저, 정정숙역(1995), 영적간호-기독교의료인/기독교간호사의 역할, 서울: 현문사.
- Grey, M. & Hayman, L. L.(1987), Assessing stress in children: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5), P.316 ~ 326.
- Hungelmann, J., et al(1985), Spiritual Well-being in older adults: Harmonious interconnectivenes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4(2).
- Kelsey, M. T 저, 배상길 역(1986), 치유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Kim, Se-Yoon(1980), The concepts of health, disease and healing theological perspective, the proceeding of the consultation on the study program of healing ministry, ACTS study series E1.
- Macnutt, F저, 조원길역(1979), 치유의 능력, 서울: 전망사.

- Mayhue, R저, 김혜련역(1986), 오늘날의 신유,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Morales, E.(1994), Meaning of touch to hospitalized puerto Ricans with cancer, Cancer Nursing, 17(16), P.464-469.
- Oden, T. C저, 이기춘.김성민역(1983), 케리그마와 상담, 서울 : 전망사.
- Patterson, C. H저, 이관용 · 장호역(1982), 카운셀링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과서 주식회사.
- Ruth, I.S.(1979). Guideline for spiritual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Nursing, in 권혜진(1989) 인용.
- Simsen, B.(1988), Nursing spirit, Nursing Times, 84(37), P.31-33.
- Taylor, E. J.(1993), Factor associated with meaning in life among people with recurrent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20(9), P.1399-1407.
- Taylor, E. J., Highfield, M. F., and Amenta, M. (1994), Attitudes and beliefs regarding spiritual care, Cancer Nursing, 17(6), P.479-487.
- Wimber, J. & Springer, K.(1992), 이재범역, 치유능력, 서울 : 나단.
- Yura, H. and Walsh, M.B.(1983), The nursing process, New York : A. C. C.

— Abstract —

Key concept : Holistic Healing, Christianity

## Holistic Healing Work of Christianity

Hwang, Ok 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alls, roles and attitudes of the Christian medical staff in

a modern medical system for holistic healing through belief in God's healing methods and God's view about medical treatment.

The meaning of healing in the Bible is derived from Rapha(רחם) in the Old Testament, it's meaning is 'heal wound', 'restore to original condition', 'repair', 'console' and 'be heal'. In the New Testament, the meaning of healing is 'to serve' and 'be in one's service' derived from Therapuein(θεραπεύειν) and 'preserve', 'rescue', 'save a life from death' derived from Sozo(σώζω). The term of soteriology originated from Sozo. Therefore the meaning of the healing in the Bible is restoring original completeness to the same as God's characteristics.

The meaning of disease is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imbalance or disharmonious. Disease is usually depravity from moral life to immoral life and abnormal life process with accompanying specific symptoms.

Medical staff were called to God's work, recognized God's will for them, and absolutely leaned on God's power to intervene and work above spatial-temporal transcendentally. They use spiritual power with medical treatment skills, help sick people to possibly have dynamic and individual relation with God and help to maintain their well-being and complete healing.

Attitudes of medical staff were compassion and love, virtue of modesty, strong and daring, patience with belief, healing with God's word, using spiritual insight, play, using medical knowledge and techniques, continuing spiritual training, laying on of hands and repentance.

\* Young-Dong Junior College